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의성어 · 의태어 교수법 연구*

배 현 숙

Abstract

Bae Hyun Sook. 2006. 06. 30. The Study of Teaching Method about Korean Onomatopoeic Words and Mimetic Words for Foreigner. *Bilingual Research* 31, 97-121. Although we want to teach effectively to foreign student, we do not have enough teaching method in vocabulary area. Especially, in the case of symbolic words the selection of vocabulary presented in texts a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Korean Language Institute. Moreover there is no systematic teaching order and teaching method, in spite of its importance. These are caused by several reasons. First, symbolic words are not basic words. Without these foreigners do not have difficulty in communicating. Second, these are secondary elements in sentence. But 'communicative competence' does not restricted to grammatical ability. When someone speaks foreign language fluently, it includes not only grammatical fluency but also pragmatic fluency. Symbolic words are important to communicate in view of adequate expression and minute expression. So, the focus of my study is to present symbolic words, and then, to set up teaching model. To teach an onomatopoeic word first of all is necessary. By knowing the semantic difference according to vowel and consonant change, it is possible to approach mimetic words. And about a mimetic words, I propose to teach first the words which has strong syntactic relation. (Silla University)

[Key words] 교수법(teaching method), 교수모형(teaching model), 상징어(a symbolic words), 의성어(an onomatopoeic word), 의태어(a mimetic words), 배열(sequence)

* 이 논문은 2005년 이중언어학회 여름 동경국제학술대회 발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1. 서론

제2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의 목표는 의사소통능력의 함양이다. 그래서 한국어교육을 담당하는 각 기관에서는 교과과정을 설정하거나 교재를 만들 때, 학습자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언어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구성하려고 한다.

각 문법 항목에 대해서 문법적 접근이 아닌 기능적 접근이 이루어진 것도 바로 이러한 의사소통능력 함양이라는 대전제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의사소통능력은 발화자의 감정이나 느낌까지 표현할 수 있어야 완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발화자의 느낌이나 감정은 개별 어휘 표현에 의존한다. 따라서 한국어 교육에서 어휘교육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의성어나 의태어는 한국인 특유의 감정이나 느낌을 표현하는 유용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그 효용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또 의성어와 의태어는 문장의 다른 성분이나 품사에 비해 그 특징이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별도의 교수법이 필요한 어휘이다.

의성어의 경우 형태와 의미면에서 볼 때, 자의적 성격이 가장 약한 어휘여서²⁾ 직관에 의해 자연스럽게 습득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한국어 음운체계로 나타낸 의성어에 대해서 외국인 학습자가 한국인 처럼 형태와 의미를 긴밀한 것으로 인식하기는 어렵다. 또한 의태어는 한국어에서 특히 발달한 것으로 그 종류와 쓰임이 다양해 외국인 학습자가 자신의 모국어에 없는 형태와 의미를 학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의성어와 의태어의 형태적 특징인 음절반복이나 모음조화에

2) 박선자(2005:52)에서는 상징어가 그 형성 특성상 일차언어로 언중의 인지적 성격이 그대로 반영되며 고정성이 강하여 해당 언어의 기층을 형성한다고 보아 언어적 공통성에 상당한 비중을 둔다.

의한 의미 대립만으로는 외국인에게 교육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외형적 모음조화는 지켜진다 해도 변이형과 의미적 등가를 전적으로 유지하지 못해 큰말과 작은말의 대립이라는 원론적인 설명만으로는 학습자를 유창한 언어능력에 도달하게 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성어나 의태어는 문장 속에서 용언을 수식하는 부속성분이기 때문에 그간의 한국어교수법이 어떤 교수법을 선택했던지 간에 의성어나 의태어는 교육내용으로 등한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의성어·의태어 교육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어 초급반과 중급반에서 직관에 의한 의성어 테스트 실시를 통해 아무리 자의성이 약한 의성어라 하더라도 직관에 의존할 수 있는 것은 몇 항목에 불과하며, 결국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만 학습되어야 함을 보일 것이다.

둘째, 기존의 교재에 제시되어 있거나 KPT(Korean Proficiency Test)에 출제된 의성어·의태어 빈도를 조사함과 동시에 교재나 시험에 제시된 어휘를 통해 교육현장에서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겠다.

셋째, 둘째 조사를 토대로 의성어·의태어의 바람직한 교육 방안을 모색해 본다.

2. 본론

2.1 한국어 교육에서 의성어·의태어 교육의 필요성

김중섭(1995)에서 외국인 대상 한국어 교육에서 의성어·의태어 교육의 중요성을 지적했고, 음운, 형태, 어원 세 측면에서 교육 방법을 제시했음에도 교육현장에서 의성어·의태어는 의미적으로 의존단위이며 문장에서 부차적 성분이어서 그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즉 의성어나 의태어는 외국어 학습자가 아예 사용하기 어려운 어휘로 본다.(최길시, 1998) 또한 제 2언어 교육에서 의성어나 의태어는 기초어휘 또는 기본어휘에서 제외되어 있다. 서상규(1998)에 제공된 의성어는 7개, 의태어는 19개가 전부이다.³⁾ 김광해(1995)의 지적대로 부사어는 1차 어휘(또는 기초 어휘)의 특징인 언어발달 초기부터 형성되는 것도 아니며, 기본적인 의사소통의 도구도 아니다. 즉 부사류는 그 의미나 뉘앙스로 설명되기 어려운 것들이어서 감각으로 습득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어휘 의미 영역이 광범위하여 전문적인 의미내용보다도 원형적 의미를 찾기가 쉽지 않은 것도 의미의 연속선상에서 교육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의 하나이다.

특히 의성어의 경우는 형태와 의미의 유연성이 강해 직관에 의해서 용이하게 학습될 것으로 기대해 교육의 중심에서 벗어나있었다. 그러

3) 카츠타 사토시(2000)에 의하면 의성어로는 ‘딱, 똑, 탁, 툃, 퍽, 하하하, 히’ 등 7개가 제시되어 있다. 그런데 ‘딱’과 ‘똑’을 별개의 형태소로 처리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개수는 달라진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개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들을 지도할 때 하나의 기본형을 설정하고 상황에 따른, 혹은 기본형에서 전이된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본다. 이외에 의태어로 ‘깜짝, 짹, 딱, 똑, 바짝, 번쩍, 벌떡, 불쑥, 빙, 빙그레, 씹, 우두커니, 우뚝, 쪽, 텅, 툃, 활짝, 힐끗’ 등 18개가 설정되어 있다. 이들 중에 의성어로도 파악되고 의태어로도 파악되는 양용의 성질을 지닌 것들도 의미의 연속선에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나 간단한 테스트 실시 결과에서조차도 이러한 기대는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초급반

학생	하하하	휴우	푹	히히	호호	헤헤	계
A	○						1
B	○	○					2
C					○		1
D	○				○	○	3
E	○				○		2
F							0
G							0
H						○	1
I	○						1
J						○	1
K							0
합계	5	1	0	0	3	3	12

중급반

학생	하하하	휴우	푹	히히	호호	헤헤	계
A	○				○		2
B	○	○					2
C	○				○		2
D	○						1
E	○						1
F	○						1
G	○						1
H	○	○	○	○	○	○	6
I	○	○			○		3
J	○	○	○	○	○	○	6
K	○						1
합계	11	4	2	2	5	2	26

의성어 교육이 필요한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간단한 테스트를 하였다. 의성어가 자의성이 약한 것이기 때문에 기초어휘에서는 어느 정도의 직관적 파악이 가능하리라는 것을 전제로 비교적 쉬운 어휘 6개를 테스트 문항으로 선택하였다. 대상은 중국인 학습자들로 초급반에서 5주 수업을 들은 학습자들과 중급반에서 2주 수업을 들은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⁴⁾ 문항 제시 방법은 ‘웃는 얼굴’의 그림 자료를 제시하고, 어휘항목 6개 중에서 선택하는 문항이었다. 초급반의 경우는 어휘 항목을 제시할 때, 필자가 직접 표현을 과장하여 발화를 해 주었다.

결과는 초급반의 경우 정답한 어휘가 평균 1개, 중급반의 경우 평균 2.2개였다. 이 중 가장 많은 정답수를 보인 ‘하하하’는 초급반 학생의 경우 중국에서 학습한 학생이 1명 있었으며, 중급반 학생들은 7명이 배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이미 학습했던 경험이 정답을 할 수 있게 한 것이 직관에 판단이었다고는 볼 수 없다. ‘웃’, ‘히히(嘻嘻)’와 ‘헤헤(呵呵)’는 언어 습관상 중국인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어휘라고 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정답한 학생이 적었던 것이다. 자신의 모국어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어휘는 외국어 어휘에서 찾기가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로 볼 때, 의성어는 직관에 의존하는 정도가 크리라는 예측은 잘못된 것이며,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학습목록을 선정할 때는 학습자 모국어의 어휘에서의 빈도수를 고려하여 설정해야 할 필요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의성어나 의태어는 문장에서 부속성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용언과의 관계 속에서 설명되어 온 것이 전부이다. 물론 상징어는 Richard(1970)의 기본어휘 선정기준인 빈도(frequency), 분포범위(range),

4) 초급반과 중급반은 모두 중국인 학습자이나, 각각 다른 교육 기관의 학습자들이다.

언어의 필요(language needs), 이용도 및 친숙도(availability and familiarity), 적용 범위(coverage), 규칙성(regularity), 학습의 용이도 및 학습부담(ease of learning or learning burden)⁵⁾ 등의 모든 조건에서 기본어휘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상징어에 대한 연구는 부사어라는 큰 범위 속에서 지엽적으로 다루어져 왔거나 용언중심적인 관점에서 호응 정보에 중점을 두고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의성어나·의태어들은 ‘-거리다, -대다, -이다, -하다’ 등을 후접하여 많은 어휘를 파생시키고 있으며, 유사음절의 반복, 양성모음과 음성 모음의 교체에 따른 의미 차이, 연어적 관계를 이루는 동사 등의 학습, 체언이나 용언 어간과 형태적 유사성을 가진 어휘들까지 폭넓은 어휘 확장을 이룰 수 있다. 따라서 의성어·의태어 중심적인 어휘지도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의태어는 다양한 비유적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한국어 학습 초기부터 원형적 의미를 학습하고 단계적 의미 추상화 과정을 감지할 수 있다면 느낌이나 감정을 더욱 용이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외국어 학습자의 목표를 어느 단계까지로 설정하든지 간에 학습자들의 욕구는 가장 한국인처럼 외국어를 습득하고자 하는 욕구이다. 또한 가장 한국어다운 것은 억양을 비롯해 상황에 어울리는 어휘 및 여타 표현을 구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상징어는 어휘 확장 및 발음, 억양 등의 학습에 유용한 재료임이 분명하다.

물론 위의 주장에 대해 상징어가 결국은 수단적 가치가 아니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언어의 유창성 못지않게 언어의 정확성 또한 외국어 교육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정확성이란 문법적 정확성 외에 표현적 정확성이 확보되었을 때 가능하리라고 본다.

한국어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의사소통능력의 함양이다. 구어적

5) 조현용(2000:62) 재인용.

문맥과 문어적 문맥을 정확하게 구분해 사용할 수 있을 때 완벽한 의사소통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문법항목의 구사나 몇몇 기능적 표현의 함양에만 국한 되어 교육하는 것으로는 의사소통능력을 함양시키기에는 부족하다. 표현의 다양성, 그리고 세밀성 등이 동반되어야 하는데, 특히 표현의 세밀성은 부사어나 관형어 등 수식어의 다양한 활용이 그 관건이 되지 않을까 한다.

2.2 교재 및 KPT(Korean Proficiency Test) 자료 분석

기존 교재에서 의성어·의태어가 어떻게 다루어졌는지 살펴보고, 제시된 어휘 목록을 토대로 의성어·의태어를 지도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을 제안해 보겠다. 필자가 분석한 교재에서 의성어·의태어라는 영역을 독자적으로 설정한 교재는 경희대 <고급 1>이었다. 우선 경희대 <고급 1>은 전체 단원과의 관련성 면에서 볼 때, 단원의 주제와 관련하여 어휘 항목을 설정하고 있다.⁶⁾

아래와 같이 문맥이나 상황을 제시하여 자음과 모음의 대립에 의한 의미의 변별을 교육하고 있다.

- (1) ㄱ. 깔깔 웃는 아기의 얼굴은 이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평화스런 모습이다.
 ㄴ. 할아버지는 아기의 재롱을 보시고 낄낄 웃으셨다.
- (2) ㄱ. 살이 썩어서 얼굴이 둥글둥글해 보인다.
 ㄴ. 조그마한 손으로 둥글둥글하게 만두를 빚었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 변별 외에 아래와 같은 비유적 의미로 쓰인

6) 제2과 : 민속과 삶(단원명) - 명절·풍속(주제) - 설날과 추석관련 어휘(어휘)
제3과 : 언어학습(단원명) - 한국어 학습, 언어와 문화(주제) - 음성 상징어(어휘)

표현들을 학습할 수 있는 자료나 교수법은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 (3) ㄱ. ?그녀는 성격이 둥글둥글하다.
- ㄴ. 그녀는 성격이 둥글둥글하다.

교재에 제시된 의성어·의태어를 알아보기 위해 서울대 전 4권, 고려대 전 12권(회화 6권 포함), 경희대 전 6권, 성균관대 전 6권, 선문대 전 6권, 이대 전 8권, 한국어능력시험 총 1급부터 6급까지 2회부터 8회까지 분석한 결과는 다음 도표와 같다.

<표1. 교재에 제시된 의성어 >

빈도	교재에 제시된 의성어
2회	개굴개굴, 꼬끼오, 꿀꺽, 끄꿍, 킁킁, 뽕뽕, 앙앙, 쟁그랑, 쿵쿵, 퐁퐁, 하하, 딱 (12/74)
3회	똑똑, 보글보글 ⁷⁾ , 야옹야옹, 쫓쫓, 쿵(5/74)
4회	멍멍(멍), 꼬르륵(2/74)

총 42권의 교재에서 4회 이상 제시된 어휘는 총 74개 의성어 중에서 ‘멍멍’과 ‘꼬르륵’ 두 개뿐이었다. ‘웃음소리’나 ‘동물의 울음소리’가 주로 나타났다. ‘웃음소리’의 경우 ‘하하’나 ‘호호’와 같은 받침이 없는 비교적 쉬운 발음의 어휘는 제시되지 않았다. 또한 ‘한국어능력시험’에서 문항으로 출제된 어휘는 ‘앙앙(영영)’뿐이었다. 이들 어휘는 주로 중급 이상의 교재에서 나타났는데, ‘동물의 울음소리’를 제외하고는, 독자적인 단원으로 제시된 것이 아니다. 지문이나 대화 속에서 제시되어 나타났다. 이들과 연어적 관계에 있는 용언은 ‘떨어지다, 짓다, 울다, 삼키다, 마시다, 참다, 울리다, 깨지다, 빠지다, 끊다,

7) ‘보글보글’은 의태어 목록에도 포함되었다.

혀를 차다, 단다’ 등이다. ‘올다, 웃다, 단다, 마시다’를 제외하고는 초급단계에서 배우는 용언들은 아니었다. 즉 이들 어휘가 중급 이상에서 제시된 이유는 용언의 난이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용언의 난이도에 부속되어 제공될 것이 아니라, 의성어 자체의 난이도에 따른 제시도 필요하다.

<표 2. 교재에 제시된 의태어와 KPT(Korean Proficiency Test)에 출제된 의태어>

빈도	교재에 제시된 의태어	KPT에 출제된 의태어
1회	156개	텅, 주룩주룩, 슬쩍슬쩍, 꾸역꾸역, 주렁주렁, 훌훌, 훌쩍, 벌렁, 꼬치꼬치, 또박또박, 힐끗힐끗, 설렁설렁, 꼬깃꼬깃, 와들와들, 두벅두벅, 콧
2회	강충강충, 꼬박꼬박, 끄덕끄덕, 끄공, 덜렁덜렁, 뒤죽박죽, 모락모락, 벌떡, 벌벌, 빙그레, 살금살금, 슬근슬근, 아장아장, 텅, 허겁지겁, 후들후들, 부슬부슬, 탁(18개/184)	꼬박꼬박 ⁸⁾ (2회), 뒤죽박죽(1회), 벌떡(1회), 살금살금(1회), 아장아장(1회), 텅(1회)
3회	꽁꽁, 동동, 뽕뽕, 울긋불긋, 팔짝팔짝, 휘훨, 흠뻑(7개/184)	휘훨(1회), 딱(1회), 푹(1회)
4회	깜짝, 싱글빙글(2개/184)	싱글빙글(1회)
5회	반짝반짝(1개/184)	반짝반짝(1회)

총 42권의 교재에서 조사된 어휘 중에서 4회 이상 나타난 의태어는 ‘반짝반짝’, ‘싱글빙글’, ‘깜짝’뿐이었다. 의태어의 경우 총 185개 어휘 중 156개는 1회씩만 나오는 어휘이다. 이는 교과과정이 의성어·의태어라는 어휘 차원에서 설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다. 또 그럴 필요성을 지금까지 느끼지 않았기 때문이다.

<표 2>에서 파악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벌렁, 벌떡, 꾸깃꾸깃, 두

8) 진한 문자는 교재에 제시되어 있으면서, KPT에서 문항으로 출제되었던 어휘이다.

벽뚜벽, 깡충깡충, 보슬보슬, 반짝반짝’을 제외하고는 자음이나 모음의 대립으로 의미의 차이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즉 이들 외의 어휘는 모두 음운대립 쌍을 이루는 어휘가 없다. 이는 음운대립에 의한 어감 차이로 접근하는 방법론은 의성어·의태어 교육에서 극히 일부분밖에 될 수 없음을 시사한다.

또 교재에서 3회에 나타나는 ‘딱’의 경우를 보면 형태만 동일할 뿐이지 그 의미는 다른 것들이다. 의성어·의태어 교육에서 원형적 의미를 설명한 후, 문맥이나 상황에 의한 다양한 의미를 교육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1) 과장님과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 (2) 지난주부터 담배를 딱 끊었다.
- (3) 딱 버티고 서서 비켜주지 않았다.

(1)은 ‘(시선이 정확히) 갑자기 마주치는 모양’을, (2)는 ‘아주 단호하게 끊거나 과단성 있게 행동하는 모양’을, (3)은 ‘굳세게 버티는 모양’을 나타낸다. 이들은 ‘단단한 물건이 부러지거나 서로 부딪치는 소리, 또는 모양’을 나타내는 의성어 ‘딱’과 의미적 유연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서는 언어 학습도에 따라 순서를 정하여 지도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KPT에 출제된 의태어>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3 급				싱글빙글 (웃다) ⁹⁾ 새근새근 투덜투덜 반짝반짝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4 급	살금살금 (건다) 휙휙 졸졸 꾸벅꾸벅	팅 (비다) 콕 콕 콕 딱	푹(마음 -놓다) 잔뜩 슬슬 쭈		주룩주룩 (내리다) 살랑살랑 꼬박꼬박 주렁주렁		
5 급	슬쩍슬쩍 (지나가 버리다) 두근두근 터벅터벅 뒤죽박죽			꾸역꾸역 (모이다) 아장아장 주렁주렁 오순도순	홀홀 (털어 버리다) 홀쩍 벌렁 벌떡		동동 (구르다) 똑똑 필필 엉엉
6 급		꼬치 꼬치 (캐묻다) 또박또박 힐끗힐끗 설렁설렁	꼬박꼬박 (매달) 꾸벅꾸벅 또박또박 뚜벅뚜벅		꼬깃꼬깃 (접히다) 쭈뼌쭈뼌 섬썩섬썩 흠칫흠칫	와들와들 (떨다) 들썩들썩 송글송글 쭈뼌쭈뼌	아슬아슬하다 나폴나폴하다 미끌미끌하다 두근두근하다

의태어를 묻는 문항에서는 ‘한국어능력시험’의 여타 어휘 문제와 달리 유의어나 반의어를 찾는 문제는 없었다. 이는 의태어가 여느 어휘와는 달리 100% 동의어가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의성어·의태어 자체의 난이도라기보다 용언 ‘건다’, ‘비다’, ‘내리다’(이상 4급) - ‘지나가버리다’, ‘모이다’, ‘털어버리다’, ‘구르다’(이상 5급) - ‘캐묻다’, ‘접히다’, ‘떨다’(이상 6급) 등 용언의 난이도에 따른 출제로 의성어·의태어 교육의 현실을 보여준다.

<표 4>에서 6급 8회에 나온 문항과 관련한 문제가 있다. 한국어 교재에서는 부사어 형태가 아닌 용언의 형태들로 나타난 어휘들이다. 그간의 연구에서 빈도 추출에서도 제외되었던 어휘들이다.

9) 진한 문자는 정답 어휘이며, 나머지는 선택문항으로 제시된 항목들이다.

구불구불하다, 굽실거리다, 그렇그렇하다, 글썽이다, 까칠까칠하다, 꺾죽거리다, 꼬장꼬장하다, 꼬지락거리다, 꾸물대다/거리다, 꼬덕이다, 꼬적거리다, 낄낄거리다, 덜렁대다, 드문드문하다, 파끈하다, 딱딱하다, 땡땡거리다, 빈둥거리다, 뽀뽀하다, 뻗뻗하다, 서먹서먹하다, 서먹하다, 솔깃하다, 수군대다, 슬쩍하다, 시끌벅적하다, 아슴아슴하다, 알쏭달쏭하다, 어른거리다, 우왕좌왕하다, 웅성거리다, 으르렁거리다, 찌뿌드드하다, 치근덕거리다, 칭얼대다, 캄캄하다, 험떡거리다, 흔들리다, 힐끔거리다

이러한 어휘들까지 고려한다면 의성어·의태어는 산발적이거나 용언중심적인 시각에서 교육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분명하다.

2.3 효과적 교육 방안

의성어와 의태어는 감정이나 느낌을 세밀하게 나타냄으로써 발화를 보다 풍부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개방적인 부류로 끊임없이 새로운 어휘를 만들어 내며 다양한 비유적 의미로 쓰여 교육하기에 쉬운 항목은 아니다.

우선 항목 설정에서부터 어려움을 겪는다. 빈도를 통한 항목 설정이 가장 객관적인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이 외에 학습자의 흥미나 욕구를 고려해 목록을 작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학습자 모국어 어휘에서의 빈도조사도 필요하다고 본다.

목록 선정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효율적, 집중적 교육을 위한 교육내용의 위계화 문제이다. 문장의 주요 부류도 아닌 의성어를 다른 기능 항목을 교수하듯이 독립된 단원을 형성할 수는 없으나, 의성어·의태어의 속성에 기초하여 교육 순서를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2.3.1 목표 의성어·의태어 배열 원리

정순매(2004)가 제시한 교육단계 배정 기준을 보면 첫째, 초급단계에서 제시되어야 한다. 둘째, 양국어를 제시할 때 두 언어간의 의미표현의 차이나 정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열한다. 셋째, 단원을 배정할 때 수업 내용과 관련 내용을 먼저 배정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첫째 조건에 대해서는 이유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필자가 파악하기로는 모든 것은 기초부터라는 선형적 결론인 듯하다.

의성어와 의태어 중에 의성어를 먼저 지도하는 것이 무리가 없다. p. 15의 <표 4>에 제시된 의성어 목록을 볼 때, 의태어는 주로 4음절인 반면, 의성어는 1음절(7개), 2음절(40개), 4음절(7개)로 의태어에 비해 음절수가 작다. 또한 의성어는 대다수가 음운적 이형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학습 초기 과정에서 의성어를 교육시킴으로써 의성어의 음운 대립에 의한 의미변별의 기초를 마련해 줌으로써 자연스럽게 의태어 교육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p. 15의 <표 4>에서 보듯 의성어에서는 사람이나 동물의 웃음·울음소리가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의성어 중에서도 동물의 울음소리는 가장 많이 일치하는 것이고 어느 정도 선형적 지식이 있으므로 동물의 울음소리부터 시작한다. 이 때 음운론적 접근 방법이 유용한 수단이 될 것이다. 즉 이들은 양성모음과 음성모음, 평음과 경음, 격음의 대응이 비교적 규칙적으로 나타나므로 의성어나 의태어의 자모음 대립에 의한 어감의 차이를 인식시키는 데 유용할 것이다.

‘울음소리’ 자체의 순서를 설정해 보면, 어휘 중에서 쉽고 익숙한 것부터 제시하는 것이 좋은데, 여기서 쉽고 익숙한 것이란 음운적 유사성 혹은 청각 인상의 유사성에 기반을 둔 것을 의미한다.

모어와 목표어의 음운적 유사성은 모국어의 영향으로 목표어를 쉽게 연결시킬 것이다. 이들은 사용 빈도가 낮더라도 초급단계에서 학습에 용이하

고 상징어의 음운적 패턴을 인지시킨다는 것만으로도 교육적 가치가 있다.

- (1) ㄱ. 가아가아 까악까악
- ㄴ. あんあん 앙앙
- ㄷ. ばんばん 뽕뽕
- ㄹ. ちえつ ちえつ 좃좃

다음으로 음운적 유사성은 약하나 음운적 이미지가 유사한 것을 교육내용으로 설정한다. 즉 국어의 경우 ㄱ 받침의 경우 ‘정지’ 혹은 ‘축급’을, ㄹ은 ‘진행’이나 ‘유동’의 의미를 나타낸다.¹⁰⁾ 이에 대응하는 일본어는 つ와 り이다.¹¹⁾

<표 4>

	소리의 주체에 따른 분류		
	동물	사람	사물
고려대	야옹, 멍멍멍	깔깔, 길길, 좃좃	와장창
	쿵쿵, 꼬르륵, 꿀꺽		
경희대		으악, 앙앙	
	꿀꺽, 아사아삭		
서울대	야옹, 짹짹, 멍멍	앙앙, 하하, 좃좃	뽕뽕, 핑
선문대		아얏, 좃좃좃, 호호호호	탕
	퐁뎡		
성균관대		중얼중얼	똑똑, 쿵쿵, 보글보글, 텅텅, 썹썹
	꼬르륵, 쿵쿵, 우당탕, 똑똑		
연세대	으르렁, 멍멍, 꼬끼오, 꿀꿀꿀, 메에	야호, 웅성, 끁끁, 뚜벅 뚜벅, 엉엉, 하하, 와아, 아하!, 튀, 길길, 웅얼	딱, 달그락달그락, 쿵, 뽕뽕, 따르릉따르릉, 똑똑, 보글보글
	꼬르륵꼬르륵, 쿵쿨, 남남		
	부스럭부스럭, 바스락바스락		

10) 김홍범(1994).

11) 카즈다 사토시(2001).

	소리의 주체에 따른 분류		
	동물	사람	사물
이화대	야옹, 음매, 꼬꼬대, 멍멍, 개굴개굴,	쪽, 엉엉	쨍그랑, 팡, 쇠아쇠아, 딱, 쿵, 졸졸, 끽끽, 뚝뚝, 딸랑딸랑, 쿵렁쿵렁, 뚝뚝

기존 교재에 나타난 의성어와 의태어는 고급단계로 갈수록 제시된 순서의 기준을 찾아볼 수 없다. 어떤 의미군을 단위로 설정된 것도 아니며, 어휘 자체에 난이에 따른 것도 아니다. 12) 따라서 의성어는 ‘웃음소리’, ‘울음소리’처럼 의미군을 단위로 설정하고, 의태어는 비유적 속성에 주목하여 원형적 의미에서 비유적 의미로의 순서로 지도할 필요가 있다.

- (1) 가. 눈물이 뚝뚝 떨어지다
 나. 정이 뚝뚝 떨어지다
- (2) 가. 찌개가 보글보글 끓는다.
 나. 그는 항상 머리를 보글보글 볶고 다닌다.
 다. 그 일을 생각하면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른다.

다음은 통사론적 기준에 따라 배열한다. 빈도도 그 설정 기준으로 중요하지만, 상징어의 특징인 통사적 제약성을 고려해 볼 때, 용언과의 의미 관계가 투명한 것부터 설정할 것을 제안한다. 즉 통사적 제약이 강한 것부터 지도한다. 분포 범위가 좁을수록 학습자에게 인지되는 정도가 강하기 때문이다. 또한 어휘적 차원에서가 아닌 문장 차원에서의 학습에도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12) 정순매(2004)에서는 양국어의 의미차이의 대소에 따라 배열 순서를 제시하고 했다.

- (2) ㄱ. 꽁꽁 얼다, 꿀꺽 삼키다, 반짝반짝 빛나다, 팔팔 끊다, 부글부글 끓다,
뽕뽕 흘리다
 ㄴ. 흠뻑 흘리다/맞다/취하다
딱 때리다/끊다/잡아떼다
 ㄷ. 잔뜩 쌓이다/찌푸리다/받다/먹다/긴장하다……

위 세 부류의 차이는 의태어가 언어 관계를 구성하는 용언들과의 선택제약의 강약에 있다. (ㄱ)의 경우 의태어와 용언의 결합 관계가 아주 밀접하다. 그에 비해 (ㄴ)은 그 제약이 약하지만 ‘흠뻑’은 선행 체언이 [+액체]인 경우,¹³⁾ ‘딱’은 [단절] 혹은 [단호함] 의미를 가진 용언과만 결합한 예이다. (ㄷ)은 통사적 제약이 없이 많은 용언과 결합되는 어휘이다.

2.3.2 의성어·의태어 교육의 일반적 순서

우선 새로운 어휘 자료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 의성어·의태어는 감각적인 표현을 위한 것이므로 생동적인 자료를 얻어야 한다. 따라서 시청각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상징어뿐만 아니라 모든 어휘는 읽기 자료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지만, 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동작이나 모양을 생생하게 볼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면 효과적이다.¹⁴⁾ 비교적 의성어가 많은 동화책이나 영상으로 편집된 이야기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정 기준으로는 우선 학습자의 흥미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 학습자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학습 어휘가 선정되었다면 실제 교육에서 첫 단계는 음절, 자모 대

13) ‘정/향취에 흠뻑 취하다’의 경우처럼 은유적 표현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14) 사토시(2001)나 정순매(2004)가 언급한 영상자료나 그림은 자료 확보의 면에서가 아니라 교육 수단적인 면에서 가치를 지니는 것이다.

립에 의한 어감의 차이를 인지시키는 단계가 필요하다. 직접 모국어로 써보거나 자신이 아는 단어와 비슷한 것을 연결하기 등을 통해 어휘에 대해 형태적 특징을 명확히 인지시켜야 한다.

형태 인지 후에는 의미를 확실히 인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의태어의 경우 동작모방(miming) 등의 수업활동(task)을 통해 단어 의미를 얼마나 자세히 구분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1) 살살, 어슬렁어슬렁, 슬금슬금

위의 어휘들을 동작을 행하는 조와 답하는 조로 나누어 보상을 동반한 ‘문제 맞추기’ 방식을 통해 수업을 진행해 본 결과 학습자들은 비교적 오랜 시간 흥미를 유지할 수 있고, 이들이 ‘건는 행위’와 관련된 어휘이며, 공통적으로 ‘천천히’ 움직이는 동작이라는 것을 언어적 설명 없이 획득하게 된다.

의성어의 경우 자모의 대립 또는 평음, 유기음, 경음의 대립이 가지는 의미 구분 외에 상황에 따른 구분도 필요하다. 즉 ‘낄낄 웃다’는 [남자가 웃다] [크게 웃다] [기분이 좋다] 등으로 의미성분이 분석될 수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허탈한 웃음’이 될 수도 있는데 이는 그림 자료(flash card)를 이용하면서 문맥에서 동작의 상황이나 배경을 제시하여 학습자에게 시각적으로 각인시킴으로써 해결해 주어야 한다.

네 번째, 의미와 형태의 관계를 공고히 만든다. 이 때 이용할 수 있는 수업 방법은 반복연습이다. 반복연습은 그 시간이 길어지거나 필요 이상으로 반복되면 지루해질 수 있는 단점이 있지만 동일하거나 유사한 음운의 반복으로 흥미를 비교적 지속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동작과 함께 연습하면 효과적이다.

마지막으로 사용해 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어휘를 직접 사용해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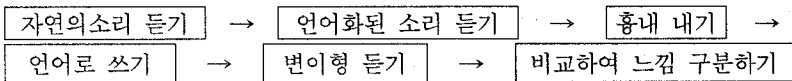
는 것은 학습자에게 자신감을 심어준다. 이의 구체적 방법으로는 동화 구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때 자료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는데 교사가 직접 각색하거나 그룹 활동을 통해 각색해서 연극을 하게 한다. 학생들이 사전이나 혹은 교사가 제시한 선택문항, 시각적 자료, 상상력까지 동원해 빈칸을 메운 다음 답을 확인하고 시연하게 한다. 이는 쓰기와 말하기 통합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집으로 돌아온 흥부는 아내와 함께 뒷마루에 앉아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면서 아기제비 한 마리가 마당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제비집을 올려다보니,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제비 등지를 덮치려는 참이었습니다. 흥부는 얼른 구렁이를 쫓아버렸습니다. 떨어진 아기제비는 다리가 부러져 있었습니다. 흥부는 고운 베와 실을 가져다 부러진 제비의 다리를 정성껏 묶어 주었습니다. 다친 제비는 곧 나았고, **무럭무럭** 자라나 **활활** 날아다니게 되었습니다.

2.3.3 의성어·의태어 지도모형

모든 언어 교육이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그러한 중요성을 동어 반복적으로 강조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수업 모형을 제시해 보려고 한다.

<의성어 지도모형>



의성어는 언어의 자의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범주이기 때문에 초급의 학습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다. 특히 동물의 울음소리는 여러 교재에서 가장 공통성을 많이 보이는 영역이므로 초급 단계에서도 발음연습이나 상징어의 음절구조를 익히게 하는 좋은 자료가 된다.

‘자연적 소리 듣기’와 ‘언어화 된 소리를 듣기’의 순서는 교육적 효과를 위해서는 자연 그대로의 개의 울음소리를 들려준 후 상상함으로써 흥미를 유발한 다음 ‘멍멍’이라는 언어적 표현을 들려준다. ‘언어화된 소리’를 제공할 때는 정답을 바로 제공하기보다는 선택 문항 형식으로 제시함으로써 학습의 긴장을 유지시킨다. 즉 ‘멍멍’이라는 답을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것보다는 ‘왕왕’, ‘윙윙’ 등과 함께 제시하여 학생들에게 선택하게 함으로써 학습자의 흥미나 긴장감을 유지시켜야 한다.

다음, 학습자는 이 중 자신이 선택한 하나의 것을 모방하여 본다. 다만 학습자의 연령이 아동이 아니므로 이에 소비하는 시간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다음, 이 음을 직접 써보도록 한다. 쓰는 단계에서는 정확성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학습자가 쓴 어휘 중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의 교체, 평음과 경음, 격음의 교체 등에 대해서도 의미에 크게 지장이 없는 한 인정해 준다. 이는 후행 단계인 ‘느낌 구분하기’를 통해 교정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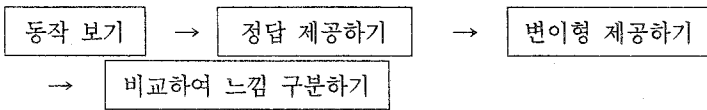
다음 단계로 변이형을 듣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어감 차이의 교육과 더불어 변이형의 난이도에 맞는 통사제약이나 의미제약을 지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고급단계로 갈수록 유사한 표현의 감정적 가치를 분별할 수 있도록 의미분석법을 적극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 (1) 가. 눈물이 푹푹 떨어지다
 나. 굵은 눈물방울이 푹푹 떨어지다
 다. 성적이 *푹푹/푹푹 떨어지다.

‘작은 물체나 물방울 따위가 잇따라 가볍게 아래로 떨어지는 소리, 또는 모양’을 나타내는 ‘푹푹’이, ‘큰 물체나 물방울 따위가 잇따라 가볍게 아래로 떨어지는 소리, 또는 모양’을 나타낼 경우는 ‘푹푹’이 쓰인다. 떨어지는 소리가 크기에 따라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으로 구

분되어 쓰이는 것이다. 변이형을 지도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느낌을 구분할 수 있게 지도하는 단계이다. 또 ‘똑똑’은 ‘성적이나 순위 따위가 몹시 두드러지게 떨어지는 모양’을 나타내어 추상적인 대상에까지 적용되어 쓰인다. 그러나 이에 대응하는 ‘똑똑’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러한 제약이나 차이를 지도하는 단계이다.

<의태어 지도모형>



의태어는 ‘소리’ 대신 ‘모양’을 제공하여, 학습자들에게 흥미를 유발한다. ‘모양’을 제공할 때는 동작이 분명하게 그려져 있는 그림 카드나 영상 자료에서 음향을 제거하고 보여준다. 이 때 상황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자료를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습자들로부터 먼저 어떤 동작과 관련되어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고, 학습자가 판단한 동작이 맞을 경우, 대화나 배경음악과 같이 보여준다.

다음 정답을 제공할 때는 의성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답을 바로 제공하기보다는 선택 문항 형식으로 제시함으로써 학습의 긴장을 유지시킨다. 즉 ‘팔짝팔짝’이라는 답을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것보다는 ‘폴짝폴짝’, ‘펼쩍펼쩍’ 등의 변이형과 함께 제시하여 학생들에게 선택하게 함으로써 학습자의 흥미나 긴장감을 유지시켜야 한다. 학생들이 제시한 답을 들은 다음 정답을 제공한다.

- (2) ㄱ. 기분이 좋아서 팔짝팔짝 뛰었다.
- ㄴ. ?기분이 좋아서 펼쩍펼쩍 뛰었다.
- ㄷ. 화가 나서 펼쩍펼쩍 뛰었다.

다음 단계로 정답과 같이 제공된 변이형에 대한 지도를 한다. 이 단계에서는 어감 차이의 교육과 더불어 변이형의 난이도에 맞는 통사제약이나 의미제약을 지도한다. 그러나 단순히 ‘큰말’, ‘작은 말’로 도식화하는 어감 차이의 교육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이들은 문맥 상황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것으로 이러한 차이를 세밀하게 인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할 것이다.

- (3) 가. 비열하게도 상관 앞에서는 살살 기었다
나. ?비열하게도 상관 앞에서는 설설 기었다
다. ?상관이 어찌나 무서운지 그 앞에서는 살살 기었다.

단지 동작의 크고 작음의 차이만은 아니다. 물론 고급반에서나 지도되어야 할 것이나 이들은 화자의 심적 태도에 따른 차이로 보인다. 즉 주제에 대해서 화자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부정적 태도가 반영된 것이다.

- (4) 가. 그는 위험한 일에 침병침병 뛰어들고 있었다.
나. 그는 무슨 일이나 빠죽빠죽 나서기를 좋아한다.

문학적인 수사 즉 은유로까지 전이되어 쓰인 위의 예들을 과연 어떻게 지도할 수 있을지 난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침병침병’의 의미는 ‘침착하지 않은 행동으로 물에 빠져드는 모양’을 나타낸다. 여기서는 침착하지 못한 행동에 대한 것이 ‘위험한 일’에 빠지는 것으로 추상화되어 나타났다. ㄴ의 ‘빠죽빠죽’은 ‘입을 내미는 모양’에서 ‘무엇을 감추지 못하거나 돌아나는 모양’을 나타낸 것으로 입에서 사물로까지 그 적용 대상이 넓어졌다.

이러한 예측불허의 확산 양상을 파악하는 것은 계량적 연구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고, 이는 당연히 최고급 단계에서 설정되어야 할 학습 내용이다.

3. 결론

한국어교육에서 의성어·의태어는 주변적 존재였다. 대부분 감정을 나타내는 주체가 동물이나 인간이기 때문에 의성어에서는 인간이나 동물의 소리가 교재의 주요 내용으로 선택되었으며, 초급 단계에서는 제시되어있지 않다는 공통점 외에는 어떤 규칙이나 원칙을 찾기 힘들기 때문에 지엽적인 교육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우선 항목 설정이 필요하다고 보며, 의성어·의태어의 특성에 따른 지도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학습자의 출신 언어권에 따라 상징어를 받아들이는 데는 차이가 있을 것이며, 이의 해결이 교육적 과제라고 생각한다. 가령 중국어는 웃음소리를 나타내는 의성어가 [소리의 크기]에 따라 의미가 분화되어 있다. 이에 비해 한국어는 ‘하하, 허허, 호호, 히히, 헤헤, 낄낄’ 등은 [성별]에 따른 구분되기도 하지만, 서로 다른 감정적 가치를 나타낸다. 따라서 어휘마다 의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아울러 각국 언어와의 대조분석도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의성어·의태어 항목을 독립 영역으로 설정하는 여부와 관계없이, 이들의 특성을 중심으로 의성어·의태어의 지도 순서를 제시하였다. 또한 의성어·의태어 교육의 일반적 순서, 구체적 지도 모형 제시를 시도하였다.

한국어 교육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은 문법 항목만도 아니며 문법의 주성분에 포함되는 주어를 비롯한 필수성분만도 아니다. 언어 표현의 궁극적 목적이 느낌이나 감정 등 내부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라면 그 내부 상태를 표현하는 핵심요소로 상징어에 대한 교육 또한 치밀하고 지속적이어야 할 것이다. 더구나 한 형태의 의미는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미변화를 겪는다. ‘-소리’를 뜻하는 의성어에서 ‘-는 모양’이라는 의태어로 확장되었고 쓰임이 빈번해

집에 따라 의태어의 의미 영역 또한 추상화를 겪고 있다. 어휘의 추상적 의미로의 전이 혹은 은유라는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교육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청사진이 마련되어야 한다.

<참고 문헌>

- 강현화(2000). “코퍼스를 이용한 부사의 어휘 교육 방안 연구.” 『이중언어학』(이중언어학회) 17.
- 김경훈(1996). 『현대국어 부사어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광해(1995). 『어휘 실제와 응용』. 집문당.
- 김광해(2003). 『등급별 국어교육용 어휘』. 박이정.
- 김중섭(1995). 『한국어 의태어 어원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진해(2000). 『언어 연구』. 한국문화사.
- 김홍범(1994). “한국어 상징어의 음운론적 특징”. 『한국말교육』(국제한국어교육학회) 7.
- 박선자(2005). “한·몽·일 상징어 사전 편찬의 실태 및 방안”. 『608돌 세종날 기념 한글 학회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자료집』, 한글학회.
- 서상규·남윤진·진기호(1998). 『한국어 교육을 위한 기초 어휘 선정』. 문화관광부 한국어세계화추진위원회.
- 심재기·문금현(1998).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재 연구-국어 텍스트의 활용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이중언어학회) 17.
- 송민(1988). “일본어권에서의 한국어 교수 대비책.” 『이중언어학』(이중언어학회) 4.
- 왕혜숙(1995). “영어화자의 한국어 작문에 나타난 어휘상 오류분석.” 『이중언어학』(이중언어학회) 12.
- 유현경(1998). 『국어 형용사 연구』. 한국문화사.
- 유현경·강현화(2001). “한국어 학습 사전에 있어서의 유의어에 관한 연구.” 제2차 한국어세계화국제학술대회.
- 이판규(2005). 『국어 교육을 위한 국어문법론』. 집문당.
- 이지영(2002). “한국어 학습자의 의사소통 특징 연구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국제한국어교육학회) 13.2.

- 정순매(2004). 「한국어 교육을 위한 의성어·의태어의 한·중 대조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현용(2000). 「한국어 어휘 교육 연구」. 박이정.
- 최길시(1998).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의 실제」. 태학사.
- 최영철(2003). 「의성어·의태어」. J&C.
- 최호철(1984). 「현대국어의 상징어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카츠다 사토시(2001). 「한국어 의성어·의태어 교육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표준국어대사전(1999). 국립국어연구원. 두산동아.
- 엣센스 일한사전(1973). 민중서관.
- 엣센스 한일사전(1983). 민중서관.

배현숙(Bae Hyun Sook)

617-736부산시 사상구 괘법동 산 1-1

신라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

전화: (051)999-5747

전자우편: bemimoore@silla.ac.kr

접수일자 : 2006. 01. 02.

게재결정 : 2006. 04. 30.